



적극적인 Creator가 되자

기해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은 복잡한 일들로 점철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동안 70여 년간 불안한 안보 속에서 살아오다가 지난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북한의 프레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의 주변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깝게는 남북미관계를 비롯하여 빗더미 위에 올라앉은 국내경제, 미·중의 무역전쟁, 영국의 Brexit, 미국의 계속 되는 금리인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둔화하는 내수경기와 완만한 수출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에는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는 7~8%대의 경제성장속에 GDP에 차지하는 건설의 비중이 10%이상 되는 그러한 환상은 버리고 현재 각각의 지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망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종래에 해오던 단순한 설계나 시공과정의 Management나 Supervision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생산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는 Creator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은 더욱 절실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라고들 합니다.

지금 정부는 건설경기를 다소 살리겠다면서 제도도 개선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업역간의 균형문제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의 정체성을 살려 미래를 설계하는 호모데우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자신을 만드는 일들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아침

한국CM협회 배영희